

7개 시외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대폭 개선

문화동 정류소 '현장 경청의 날' 화장실·비가림 시설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 작업

개선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해당 시설이 민간 소유여서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구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 화장실의 경우 지난 2016년 개방화장실로 지정됐지만 영세한 위탁운영 개인사업자의 관리 부족과 재정 한계로 이용자들에게서 꾸준히 불만이 접수됐다.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는 담양, 곡성, 순천, 순창, 남원 등 전남과 전북 동부지역을 오가는 이용자가 하루 평균 2500명에 이른다. 북구 말바우시장, 우산근린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도 이용하는 중요시설로, 관리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기 앞서 악취와 고장난 화장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 등 광주지역 외곽에 위치한 7곳의 시외버스정류소의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7일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제7회 현장 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이용객 시장 등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이용객 등 시민들과 함께 정류소 화장실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현장 경청의 날에는 이 시장뿐 아니라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서정훈·박창순·이경희 시민권익위원, 문인 북구정장, 최기영·양옥균·최무송·김건안·백순선 북구의원, 이계영 금호고속주

작행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외버스정류소 이용자 대다수는 광주를 거점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 중에서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소는 전남 동부권과 전북 일부지역으로 이어진 중요한 교통거점"이라며 "민간관리 시설물이라도 시민들에게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용객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시외버스정류소 화장실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계영 금호고속 직행본부장은 "문화동 정류소를 거쳐가는 시외버스 97대가 운데 저회 회사가 2대에 불과하지만, 지역 사회 공헌 측면에서 저회 회사가 시설 개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서구 금연 캠페인 지난 25일 광주시 서구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무등산 국립공원 중심사 지구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금연캠페인에 참여한 등산객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금연희망자들은 서구보건소를 방문하면 폐 기능 검사·니코틴 패치 등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세계수영대회 北 참가 염원 담아...광주시청 시민홀에 대형 한반도기 현수막

DMZ 평화피앗기 행사 참가 시민 3000여명 직접 만들어

평화통일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전시된다. <사진>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인 27일부터 시청 시민홀에 전시되는 대형 현수막은 지난 4월27일 4·27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열린 'DMZ 평화인간띠앗기 행사'에 참가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만들었다. 대형 한반도기가 인쇄된 현수막에 통일에 대한 염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과 북한 선수단 참가 등을 염원하는 문구를 담았다. 현수막에는 '북한선수단 수영선수권 대회에 꼭 오세요', '오라 광주로, 가자 통일로', '남북이 하나되는 세계수영대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등의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다. 행사를 주관한 DMZ평화인간띠앗기운동



광주전남본부의 최영태 상임의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북한에 꼭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DMZ 평화인간띠앗기 행사"와 "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형현수막 전시 행사"가 계기가 돼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이 수영대회에 꼭 참가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북구, 북부서·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 종합체계 구축 3개 기관 업무협약

광주시 북구가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해 광주북부경찰서·도로교통공단·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손을 잡았다. 주민 교통편의 증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안전 종합체계구축에 돌입한 것이다. 북구는 "28일 북구청에서 북구 지역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 관련 정보공유,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고자 교통체증 해소 대책추진 TF팀을 운영해 왔다. 이에 지난 3월 시비 2억 원을 확보해 매곡동 광주국

립박물관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박물관 진입로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화사거리 구간의 체증 해소를 위해 TF팀 논의 결과를 광주시에 건의해 현재 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연구용역으로 포함돼 용역이 진행 중이다. 북구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5일에는 교통안전 기관 관계자, 전문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북구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합동캠페인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북구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市농업기술센터 '도농상생 농업체험 한마당'

내달 1일 농업기술센터 다양한 체험행사·직거래장터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행복한 만남 '도농상생 농업체험 한마당 행사'를 다음달 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농상생 농업체험 한마당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어린이 농업꿀드넬, 주먹밥 만들기, 꽃길 보물 찾기, 상자 논 벼 모내기, 떡메치기, 반려동물 모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우리밀 제품과 청년농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우리밀로 만든 컵라면, 국수, 과자 등

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마련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사 종료 전 추첨을 거쳐 토마토 등 농산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사도 준비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원활한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29일까지 이메일 (dongyul2010@korea.kr)로 접수하거나 방문(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613-5315) 접수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평동역에서 나주방향으로 3km지점(용곡동 418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구, 수영대회 대비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31일까지...3개 점검반 구성

광주시 남구가 오는 7월 열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남구는 "글로벌 스포츠 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를 대비하기 위해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트와 병원, 금융기관, 학교 등 곳곳에 설치된 운영 중인 식품 자동판매기 161대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구성, 오는 31일까지 일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및 무신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행위를 비롯해 급수통과 급수 호스 등 자판기 내부 세척 등 위생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 자판기 내부 정수기 및 살균 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음용에 적합한 식수 사용 여부, 영업자의 영업 신고번호 및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등을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주가 자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미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자동판매기를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